시 론

기술이 가져온 불화(不和)

천 세 진
문화비평가·시인

새로 태어난 존재는 이전의 존재와 불화(不和)한다. 어미에게서 모든 것을 받는 태아조차 어미와 불화한다. 그 증거가 입덧이다. 이전의 존재와 무엇인가는 다르기 때문이지만 어미와 자식이 전적으로 불화하지는 않는다. 불화보다는 조화가 더 크다. 사랑이 전제돼 있어서다.

새로 태어난 존재가 문화인 경우는 어미-자식 간의 관계보다 불화가 더 크다. 시간적·공간적으로든 이질(異質)이 전제돼 있고, 혈통적 친연성이 없는 만남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종(異種)의 문화도 공존할 수 있다. 덕분에 융합과 통섭의 문화가 태어난다. 다만 깊은 이해와 포용이 전제돼 있어야 한다.

문화보다 물질적인 성격이 강한 문명의 경우는 거의 언제나 불화하고 공존도 어렵다. 새로운 문명적 존재의 탄생은 이전의 것을 밀어내야만 성장한다. 총과 자동차가 발명됐는데 화살과 마차를 고집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문화는 믿고 따르는 가치의 문제라는 성격이 강하지만, 문명은 생명 존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효율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성격 때문에, 신기술과 구기술이 일으키는 불화의 결말은 거의 언제나 '대체'의 형태로 나타난다. 현시점에서 가장 첨예한 기술 대립의 사례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다. 기후 위기 해소 등의 명분으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은 이전의 것과 맥락 없이 탄생하지 않는다. 이전의 것들을 개선하는 것에 신기술의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신기술은 이전의 것을 대체한다. 그런데 이전의 기술들이 가진 나쁜 것들을 좋은 것으로만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기후 위기를 벗어나게 할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이유다.

리튬을 얻기 위해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을 비롯해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채굴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원유 시추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리튬 광산이 더해진 것이 현실이다. 전기자동차라는 신기술 결과물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과 전기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새로운 환경오염의 탄생이다.

AI가 가져올 대체는 전기자동차가 가져올 대체와는 질이 다를 것이다. AI도 전기자동차처럼 도구임이 분명하지만, 인간과 인간의 본질적 역할까지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신기술이 이전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이라지만, 이전의 것을 파괴하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 대체되고 파괴될 대상이 인간이라면 기술혁신이 '기술을 위한 기술'은 아닌지, 그 진정한 의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기술을 통해 혁신해야 할 사회라면 기술적 가치 이상의 것을 지니지 못한 깊이 없는 사회다. 한국이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기계화 정도가 가장 높고, 신기술이 가장 빨리 접목되는 나라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자료 전송에 팩스를 사용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뒤처진 일본을 보며 우월감을 느낀다.

코로나19 시절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방식의 존재 증명을 끊임없이 요구받았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불편하게 된 사회가 과연 유토피아일까. 한국은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그게 자랑스러운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신기술은 문명적 사물의 운명을 가르기만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문명적 사물이 인간과 오래 함께 지내면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태어난 문화가 이전의 것들을 몰아내는 방식을 취하면 그 영향에 든 공동체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에 더해 파생적 변화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뿌리가 약한 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다.

모든 기술은 혁신적이고 동시에 파괴적이다. 이득을 주는 동시에 해를 끼친다. 이득만을 바라보고 파괴에는 눈감으면 불화는 깊어진다. 이득조차 언제나 자의적이다.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모두에게 이득이 돼야 하지만 그런 기술은 없다.

신기술이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다. 기술이 첨단화되고 정교해질수록 일상이 편안해질 수 있지만 통제해야 할 부작용도 그만큼 많아진다. 그 부작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행복은커녕 새로운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자치칼럼

'나쁜인 놈'

이 계 양
광주푸른꿈창작학교 교장
품자주자시민들 공동대표

필자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며, 남의 아픔이 나와 연결돼 있음을 깨닫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여긴다. 이것이 '민주시민'이요 공동체 의식이라 보기 때문이다. 더 쉽게 말하자면 '곁을 (내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곁'은 '어떤 대상의 옆 또는 공간적·심리적으로 가까운 데' 혹은 '가까이에서 보살펴 주거나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파생한 '곁을 주다'는 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할 수 있도록 속을 터 주다'라는 의미다. 곁에 있다. 곁을 지키다. 곁이 되다. 곁을 내어주다 등에서 그 의미망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와 반대로 '곁이 비다'는 '가까이에서 지켜주거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근래 들어 곁이 비어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짐을 목도하고 있다. 고독사가 그것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성별 미상자(29명)를 제외한 고독사 사망자 3천632명 중 남성은 84.1%(3천53명), 여성은 15.9%(579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론 60대(1천146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1천97명), 40대(502명), 70대(470명) 순으로 50·6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에 특히 취약했다(53.9%)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곁을 주거나 곁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얘기가 있다. 티벳의 성자라 일컬어지는 썬다 싱(S Singh·1889~1929)의 실제 이야기다.

썬다는 만 서른 살이 되는 1919년 7월 초에 열 번째로 티벳에 들어갔다. 9월 말이 되자 큰 눈이 내리고 길이 얼어 전도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어느 날 썬다는 랑케트 쪽으로 가는 중에 티벳인 한 사람을 만나 눈보라 속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동행하게 됐다. 사력을 다해 걷는 중에 쓰러져 손·발이 다 얼어가는 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다. 썬다는 동행인에게 "이 사람을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것이니 구조하여 업고 가자"고 했다. 그랬더니 동행인은 "그러다간 우리도 같이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겠소" 하면서 혼자 가버렸다. 약한 몸의 썬다는 차마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 얼어 죽어가는 그를 등에 업었다. 눈보라치는 산길을 걷고 고개를 넘으며 몇 번이나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 사투한 끝에 겨우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랐다. 그때 그의 눈에 또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이미 얼어 죽어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바로 얼마 전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가 버린 동행인 그 사람이었다. 썬다와 등에 업힌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서로의 온기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만 살겠다고 앞서 가던 동행인은 혼자만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썬다는 목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의식을 회복한 등에 업힌 사람과 동행해 랑게트로 향했다.

얼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등을 내밀어 곁을 준 썬다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을 뿐 아니라 자기 생명도 살렸다. 그러나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길을 떠난 사람은 곁이 비어 얼어 죽고 말았다. 결국 곁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은 곁이 비어 죽게 되고, 곁을 내어주면 누군가를 살리고 자기 자신도 살게 된다는 명징한 얘기다.

현대는 초연결망 사회이면서도 곁을 내어주지 않음으로 고립, 소외된 개인으로 존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어떤 이유로건 평생 곁을 내어주지 않은 많은 아버지들 특히 50·60대 남성들이 곁이 빈 채로 고독사하는 통계가 슬프고 안타깝다. 어디 이뿐이랴. 섬세한 곁이 필요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곁을 주지 않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늙은 부모님들에게 곁을 주지 않는 아들딸들은 얼마인가. 정부와 병원의 곁을 주지 않는 관료와 의료진들 사이에서 죽어가는 환자는 얼마인지.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묶인 채 곁을 주지 않는 가족과 직원들의 틈새에서 가는 숨을 몰아쉬고 있는 노인들은 그 얼마인지. 사업주의 착취 구조 속에서 시름시름 목숨이 사위어가는 곁이 빈 노동자들은 얼마인지. 권력과 돈과 지위의 횡포 속에서 누군가의 곁을 기다리다가 촛불 연기처럼 사라지는 소시민들은 또 얼마인지. 없는 자, 약한 자들도 곁을 내어주는 마음이 필요하지만 가진 자, 강한 자들이 곁을 내어주는 일이 더 쉽고 절실하게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얼마 전 어느 신문 칼럼에서 봤던 낱말이 생각난다. '나쁜 놈'의 어원이 '나뿐인 놈'이라는.

독자투고

'교통약자' 위한 인프라 개선 시급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은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모두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도시화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은 필수적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인프라 개선은 단순히 물리적인 설비를 넘어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돕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먼저,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휠체어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보행로를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신호등이나 보행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 도로를 확대해 교통약자들이 차량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통 인프라 개선은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덕용·고흥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인구 지속 감소 광주 140만명 붕괴도 가시권이라니

광주시 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 최근 10년간 내리막길이다. 140만명대 붕괴도 가시권에 들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등 해법 마련이 시급해졌다. 지난 9월 기준 광주 주민등록인구는 141만1천357명이다. 1986년 전남도와 분리돼 직할시로 출범 당시 92만8천851명이었으며, 2002년 139만7천452명에서 2003년 139만5천762명으로 1천690명이 줄어든 것을 빼곤 매년 증가했다가 2014년 147만5천884명을 기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2015년 147만2천199명, 2016년 146만9천214명, 2017년 146만3천770명, 2018년 145만9천336명, 2019년 145만6천468명, 2020년 145만62명, 2021년 144만1천611명, 2022년 143만1천50명, 2023년 141만9천237명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시가 첨단 신산업으로 인공지능과 미래자동차 분야 육성 등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오히려 2019년부터 속도가 붙으면서 이르면 2025년에 140만명대가 무너질 것이란 암울한 예측마저 나온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사람도 일자리도 몰린다. 청년들의 유입도 가팔라졌다. 한정된 공간에서 주거와 취업 등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 저하도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화 현상과 더해 소멸 위기로 치닫는다. 대도시인 광주도 마찬가지라고 하나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도 무용지물이었다.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위축되고 있다.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여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내려보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본격화해야 한다. 광주시는 청년이 교육 받고 직장을 얻고 정착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대로면 130만명, 나아가 이하까지 위태롭다. 눈 앞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극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태원 참사 아픔 그대로…광주서도 차분했던 핼러윈

광주에서도 핼러윈은 차분했다. 서구 상무지구 등지에 20-30대 젊은이들이 몰리지 않아 평일과 크게 다름 없었고, 상인들도 대다수가 이벤트를 생략하고 일상과 똑같이 업소 운영을 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대목이라 해도 조심스러웠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몰려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뻔히 예상됐음에도 서울시는 물론 경찰과 소방당국의 미흡한 대처에서 비롯된 인재였다. 국가가 책임질 중대사지만 2년이 되도록 진상 규명과 처벌은 요원한 실정이다.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도 25-31일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동구 동명동, 상무지구, 남구 양림동, 북구 전남대 후문, 광산구 첨단지구 등 5곳에 대해 제반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 관계 기관과 함께 사전 점검, 현장 예찰을 실시하고 인파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도를 파악했다.

그러나 아직도 다중행사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 관리대책마저 수립하지 않는 등 무사안일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광주 도심 한복판인 충장로 우체국 사거리 일대에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동구 주관 '충장 라온페스타' K-POP 경연대회 도중 순식간에 인파가 쏠려 통행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체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앞뒤로 꼼짝달싹 못하자 일부 사람들이 작은 틈 사이를 밀치며 이동하면서 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급기야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태원의 아픔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다. 광주에서도 또래의 슬픔을 안은 젊은이, 그리고 상인도 자중하는 분위기다. 핼러윈이라고 특별히 다른 건 없었다. 이태원 거리에는 늦은 밤시간대 평소보다 일부 구간에서 보행이 다소 어려웠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는 와인과 음료 등 먹을거리와 꽃다발들이 가지런히 놓였다.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올리는 등 추모객도 눈에 띄었다. 앞으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한다. 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아침을 여는 詩

플라스틱 탁상시계도

김준태

고장 난 탁상시계를 비닐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잠시 멈칫했더니
나사가 몇 군데 빠진 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 봐라, 똑딱똑딱 가고 있지 않는가
분침과 시침은 물론 초침도 구부러지고
벨을 울리는 기능도 다 돼버린 녀석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듯 소리를 내는 것일까
똑딱똑딱! 그 소리가 우리 사람의 숨소리
같기도 하고 맥박이 뛰는 소리로도 들려
차마 쓰레기로 버릴 수가 없어 망설였다
부서진, 고장 난 탁상시계
속에서 어쩌면
벌컥벌컥 숨 쉬고 있을 시
간의 푸른 숨통!
그러면 그럴까 플리스틱으
로 만든 시계도
사람 체온이 닿으면 사람의 체온을 넣으면
아하 똑딱똑딱 눈물을 소리 내는 것이었다.
(시집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도서출판 b, 2018)

[시의 눈]

혜정이는 시계처럼 일하시던 엄마 모습이 생각나 곧잘 눈물을 훔쳐냅니다. 나 또한 덩달아 슬퍼졌군요. 누가 버린 시계는 그냥 죽은 척, 하지만 건전지나 '체온을 넣으면' 곧 살아나곤 합니다. 아직 쓸모 있다 항변하는 거지요. 길 건너 초등학교 건물에 시계가 걸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등교생을 내려다 보네요. 뛰는 아이, 깔깔 웃는 아이, 준비물을 잊고와 시무룩한 아이…. 그가 축 처진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아, 똑딱똑딱 등을 두드려 주는군요. 그애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도 혜정이 눈물 숨통을 틔워 줄까하고 시계처럼 걸어갑니다. 똑딱똑딱, 내겐 사랑의 체온이 아직 살아있지요. 김준태 시인은 해남 출생으로 1969년 전남일보와 전남매일 신춘문예,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 '참깨를 털면서'(1977), '나는 하느님을 보았다'(1983) 등을 펴냈습니다. 그는 광주정신을 노래한 대표시인으로 현재 금남로 리케이운에서 통일, 생태, 우주를 연결하는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CMYK